

대 회 사

오늘 민족문화수호와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불교는 위기와 혼돈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마음을 한데 모으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족 전통문화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1700년 우리 민족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 온 한국불교를 단지 하나의 종교로 치부해 왔으며, 우리는 정부가 주는 예산으로 편하게 불사하고, 편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진리처럼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한국불교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내부는 그동안 부정적 관행과 타성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외형으로만 보면 불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교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덩치에 비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원효스님처럼 스님들이 사람들의 생활과 삶의 터전 속으로 들어와서 그들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길잡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는 국민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함께 호흡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사회의 신뢰는 하락하였고, 우리들 스스로 결집하지 못하고 단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불교를 홀대하고 쉽게 생각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 공공기관과 공직자에 의한 종교편향 문제로 우리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20만명의 불자가 운집하여 종교편향 문제를 규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계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종교편향 문제는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그 양상이 조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개신교인들의

사찰 땅밟기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목사와 장로 등 개신교인들이 조계사에 난입해 불교를 비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땅밟기는 국내를 넘어 미얀마 등 불교 국가에까지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6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우리 종단의 자성과 쇄신을 위한 결사를 제안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려시대에는 백련결사와 정혜결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근세에는 ‘부처님 법대로 살자’라는 봉암사결사로 한국

**승가의 혁신과 수행풍토 확립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봉암사 결사 규약과 같이 우리도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지침은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곧게 실천하는 길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직할
교구는 이러한 민족문화수호 활동과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원동력이
되어야 하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다수가 거주하며 살고 있는 수도권 사찰을 중심으로 자성과 쇄신을 통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변화는 미미할지라도 ‘우리’가 변화하면 한국불교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비록 조금은 어렵고 더디더라도 종교적 가르침과 원력, 국민들의 비판과 격려 속에 한국불교가 성장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지난날의 모습을 성찰해야 합니다. 한국불교가

**변화와 쇄신하는 모습으로 나설 때만이
한국불교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1700년 한국불교의 오늘과 내일이
부끄럽지 않고 국민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정진하고, 발원합시다. 감사합니다.**

불기2555년 3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